

慶州 倣冢地區 墳墓群 構成과 連接 配置

金甫相*

목 차

- I. 머리말
- II. 慶州 倣冢地區 調査 現況
 - 1. 位置와 環境
 - 2. 調査 現況
- III. 倣冢地區 墳墓群 構成과 連接 配置
 - 1. 倣冢地區 墳墓群 構成
 - 2. 倣冢地區 墳墓의 連接 配置
(積石木槨墓를 中心으로)
- IV. 맺음말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國文要約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에서 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遺蹟의 發掘調査를 담당하고 있다. 쪽샘地區는 일찍부터 마을이 形成된 곳으로 民家에 의해 遺蹟의 破壞가 꾸준히 이루어진 곳이다. 쪽샘地區는 大陵園 동쪽에 位置하고 있는 中·小型의 墳墓群이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調査된 A地區~G地區의 調査 現況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몇 가지 現狀에 대하여 檢討를 實施하였다. 檢討 結果 쪽샘地區는 月城에서 西川과 北川이 만나는 北西쪽으로 낮아지는 微高地의 區域에 形成된 大規模 古墳群이다. 大陵園의 墳墓에 비해 規模가 相對적으로 작고 限定된 區域內에 單一墳과 連接墳이 隣接하여 密集해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었다.

쪽샘地區의 墳墓群 構成과 連接 配置를 檢討한 結果, 각 微高地 內에 形成된 丘陵에는 南쪽 末端部에서부터 北西쪽 方向으로 單一墳과 連接墳이 東西로 나열하여 北쪽 末端部까지 隣接하여 築造되었음을 把握하였다. 墓域의 北쪽 境界는 지금의 太平路로 판단된다. 微高地 사이의 低地帶에는 木槨墓群과 石槨墓群, 그리고 甕棺墓가 자리한다. 積石木槨墓 사이의 빈 공간에는 祭儀와 관련된 非墳墓遺構와 함께 祭儀物이 配置되어 있다. 쪽샘地區 墳墓群 構成과 連接樣相을 高塚古墳分布圖와 함께 檢討하여 大陵園과 鳳凰臺 區域의 大形墳도 微高地에 築造되며 微高地 南端에서 北西쪽 方向으로 築造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大陵園과 鳳凰臺 區域의 각 丘陵의 北쪽과 西쪽 末端部에는 大形の 古墳을 築造하여 墓域 境界로 삼은 것으로 推論 해보았다.

Ⅰ 主題語 Ⅰ

積石木槨墓, 新羅古墳, 連接墳, 構成, 配置

I. 머리말

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 遺蹟(이하 쪽샘地區)은 大陵園 一圓¹⁾에 包含된 區域으로 2007년부터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에서 發掘調査를 實施하고 있다. 이곳은 마을이 形成되어 小路를 中心으로 民家가 빼곡히 들어찼던 地域으로 現在의 大陵園 東쪽에 位置한다. 民家の 形成으로 封墳의 平坦化가 되어 肉眼으로 觀察 가능한 古墳은 몇 基 되지 않는 狀況이었다. 發掘調査는 마을의 小路를 基準으로 地區를 나뉘 民家가 撤去된 地域부터 調査를 實施하고 있으며 遺構現況을 정확히 밝히고 向後 調査 必要性이 浮刻되는 遺構를 中心으로 精密發掘調査를 計劃을 樹立하는 것이 目的이다.

지금까지 慶州市內의 積石木槨墓 研究는 從來의 무덤과는 다른 構造로 인하여 起源과 構造를 中心으로 先學들의 많은 研究가 進行되었다. 그 中 天馬塚와 皇南大塚의 發掘調査 및 報告書 發刊은 考古學界에 많은 研究 主題를 던져주었다. 慶州市內 地域의 發掘調査는 開發에 의한 救濟發掘이 大多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짧은 期間과 적은 豫算으로 遺構 內部調査에 限定되었고, 墳墓의 內部 調査에 대한 成果가 있었으나 墳墓를 둘러싼 周邊의 多様な 關聯 遺構 調査는 사실상 制限的이었다고 하겠다. 현재 進行되고 있는 쪽샘地區의 分布調査는 過去 慶州市內 墳墓群의 發掘調査를 補完하고 미처 確認하지 못했던 考古學的인 現狀을 찾는 順機能이 있겠다고 할 수 있다. 向後 分布調査의 結果는 慶州市內 墳墓群의 長期的인 發掘計劃의 基礎資料로 活用이 될 것이다. 또한 三國時代 王陵比定과 積石木槨墓의 起源 問題 등 論難이 되고 있는 많은 問題點들을 풀어낼 실마리를 提供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本 考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調査된 慶州 쪽샘地區 A地區~G地區의 現況

1) 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遺蹟은 행정구역상 皇吾洞(皇吾洞) 一帶를 中心으로 鷄林路 東쪽 皇南洞 一部와 瞻星路 北쪽 仁旺洞 一部를 包含하며, 史蹟 第41號 慶州 皇吾洞古墳群과 史蹟 第40號 慶州 皇南洞古墳群, 史蹟 第42號 慶州 仁旺洞古墳群이 統合된 史蹟 第512號 ‘慶州 大陵園 一圓’의 一部에 包含된다.

그리고 이곳은 ‘味鄒王陵地區’·‘大陵園地區’·‘月城路古墳群’·‘慶州 邑南古墳群’·‘慶州市內 古墳群’·‘慶州市內 平地古墳群’·‘月城地區古墳群’·‘新羅王宮古墳群’·‘月城北古墳群’ 등 行政區域이나 事業區域 또는 調査者나 研究者의 目的과 研究方向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최병현, 2014, 「慶州 月城北古墳群의 形成過程과 新羅 마립간시기 왕릉의 配置」, 『韓國考古學報』第90輯, pp.121~123 참조).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에서는 당초 384,000㎡(116,160평)의 面積에 대한 發掘調査 計劃을 세워 實行하였다. 그러나 調査를 實施하여 確認한 遺構 수는 너무나도 많았고 모든 遺構를 調査 하기는 不可能 했다. 그리고 이러한 遺構의 過飽和 狀態는 調査 期間의 長期化로 民願이 發生하여 調査對象地 面積(229,674㎡)에 대한 修訂이 있었다. 이러한 調査對象地의 修訂은 짧은 期間 안에 調査를 마무리 한다는 것이 아니라, 쪽샘地區 全體의 遺構分布 現況을 把握하며 이를 基盤으로 長期間의 發掘調査를 세우기 위함이다.

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보이는 몇 가지 現狀에 대하여 간략히 紹介하고자 한다.

II. 慶州 倭冢地區 調査 現況²⁾

1. 位置와 環境³⁾(그림 1·사진 1 참조)

慶州市街地는 楸嶺 북쪽에서 發源하여 西流하는 北川이 만든 扇狀地 상에 立地하고 있다. 따라서 市街地가 位置하는 동쪽은 扇頂部에 해당하며 海拔高度가 60m 정도이나 서쪽에 先端部를 흐르는 兄山江 流域을 향하여서는 완만한 傾斜를 이루며 25m 정도까지 낮아진다.



그림 1. 調査對象 位置와 周邊 主要 遺蹟分布圖

2) 本考는 지금까지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에 의해 發刊된 倭冢地區 報告書를 中心으로 一部の 內容을 拔萃・整理 하였다.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2011, 『慶州 倭冢遺蹟 發掘調査 報告書Ⅰ-A地區-』.

_____, 2012, 『慶州 倭冢地區 新羅古墳Ⅱ-C地區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13, 『慶州 倭冢地區 新羅古墳遺蹟Ⅲ-B1號 發掘調査 報告書-』.

_____, 2014, 『慶州 倭冢地區 新羅古墳遺蹟Ⅳ-A·C~F地區 分布調査 報告書-』.

_____, 2015, 『慶州 倭冢地區 新羅古墳遺蹟Ⅴ-G地區 分布調査 報告書-』.

3)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15, 위의 책, pp.22~23.

쪽샘地區는 慶州盆地 內 海拔 41m ~ 44m 內외의 北西-南東으로 긴 橢圓狀의 微高地에 해당된다. 南高北低形을 基本으로 東高西低形을 보인다. 동쪽의 源花路, 서쪽의 鷄林路, 남쪽의 瞻星路, 북쪽의 太宗路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에는 南川이, 서쪽에는 西川이, 북쪽에는 北川이 1km 내에 隣接한다. 遺蹟은 市內 중심가에 位置하여 商街와 民家가 密集되어 있었다.⁴⁾ 현재는 古墳公園 造成을 위해 모두 撤去된 狀態이다. 日帝強占期부터 확장된 慶州市街地의 影響으로 多數의 遺構가 破壞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⁵⁾ 周邊에는 近來에 調査된 皇吾洞 100遺蹟⁶⁾과 1960~70年代 慶州市의 廢古墳 整備事業에 따라 發掘調査된 皇吾洞 1號,⁷⁾ 4號, 5號,⁸⁾ 32-1號,⁹⁾ 33號,¹⁰⁾ 34號,¹¹⁾ 37號,¹²⁾ 月城路古墳群,¹³⁾ 鷄林路 古墳群,¹⁴⁾ 味鄒王陵地區 古墳群¹⁵⁾ 등 新羅古墳群이 分布한다.

-
- 4) 慶州 쪽샘 一帶 마을은 터파기가 알게 시행된 單層의 기와건물이 일찍부터 形成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의 大規模 建設行爲로부터 遺構를 보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民家와 生活施設物(下水道, 化粧室) 등 建築行爲로 인한 封墳의 破壞와 平坦化가 되었으나 遺構 分布樣相을 把握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發掘調査 參與者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5) 日帝強占期부터 緊急發掘이라는 名目으로 調査가 이루어졌으나 多數의 遺構가 破壞되었고, 1960年代와 1970年代 大規模 發掘調査 以後 慶州市街地가 擴張되었다.
 - 6)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2008, 『慶州 皇吾里 100遺蹟 I』.
 - 7) 金元龍, 1969, 「皇吾里 第一號墳」, 『慶州 皇吾里 第一·三三號, 皇南里 第一五一號 古墳發掘調査報告』.
 - 8) 洪恩俊·金正基, 1964, 「皇吾里 四·五號墳發掘調査報告書」, 『皇吾里 四·五號, 皇南里 破壞墳 發掘調査報告書』.
 - 9) 秦弘燮, 1960, 「慶州 皇吾里 古墳發掘調査略報告」, 『美術資料』 2, 國立中央博物館.
 - 10) 秦弘燮, 1969, 「皇吾里 第三三號墳」, 『慶州 皇吾里 第一·三三號, 皇南里 第一五一號 古墳發掘調査報告』, 文化財管理局.
 - 11) 강진아, 2009, 「慶北大學校 博物館 所藏 慶州地域 出土 馬具의 檢討」, 『慶北大學校博物館 年報』 제7호, 慶北大學校 博物館, pp.73~84.
 이하나, 2009, 「慶北大學校 博物館 所藏 慶州地域 古墳出土 農工具」, 『慶北大學校博物館 年報』 제7호, 慶北大學校 博物館, pp.57~71.
 류진아, 2010, 「慶州 皇吾洞 34호 出土 裝身具類 報告」, 『慶北大學校博物館 年報』 제8호, 慶北大學校 博物館, pp.71~99.
 다카하시 코지(高橋浩二), 2011, 「味鄒王陵地區古墳群 및 皇吾洞34號墳 出土 翡翠曲玉」, 『考古學論叢 慶北大學校考古學科 30周年記念』, 慶北大學校出版部.
 - 12) 秦弘燮, 1967, 「慶州 皇吾里古墳 發掘調査 概要」, 『考古美術』 85, 韓國美術史學會.
 金元龍, 1976, 『韓國考古學年報』 3, 서울大學校 博物館.
 慶北大學校 博物館, 2000, 위의 책.
 - 13) 國立慶州博物館·慶北大學校博物館, 1990, 『慶州市月城路古墳群』.
 國立慶州博物館·慶北大學校博物館, 2003, 『慶州 仁旺洞 遺蹟-협성주유소 부지-』.
 - 14) 韓炳三, 1973, 「慶州 鷄林路 新羅古墳發掘調査」, 『博物館新聞』 第29號.
 李准求, 1973, 「慶州鷄林路 出土遺物」, 『博物館新聞』 第29號.
 姜友邦, 1973, 「慶州市鷄林路發掘速報」, 『博物館新聞』 第30號., 國立中央博物館.
 國立慶州博物館, 2010, 『慶州 鷄林路 14號墳』.
 - 15) 文化財管理局 慶州史蹟管理事務所, 1975, 『慶州地區古墳發掘調査報告書』 第一輯.
 文化財管理局 慶州史蹟管理事務所, 1975, 『慶州地區古墳發掘調査報告書』 第二輯.
 金宅圭·李殷昌, 1975, 『皇南洞古墳發掘調査報告』, 嶺南大學校博物館.



사진 1. 調査對象 遠景(南東→北西)

2. 調査 現況(표 1 · 그림 2 참조)

1) A地區

A地區는 皇吾洞 53號墳을 包含하는 微高地의 북쪽과 皇吾洞 39號, 40號, 41號墳 남쪽에 位置하는 微高地가 낮아지는 低地帶로 丘陵 사이의 谷澗地形이다(海拔高度 42m 内外). 調査結果 現代 建物에 의한 攪亂이 廣範圍하게 이루어진 곳으로, 대부분의 遺構는 上部가 遺失된 채 바닥에서 10~30cm정도만 남아있었다. A地區는 小形墓가 주를 이룬 곳으로 三國時代 墳墓遺構가 38基로 積石木槨墓 3基, 木槨墓 18基, 石槨墓 5基, 甕棺墓 2基, 埋納大壺 10基가 確認되었다. 谷澗地形을 따라서 一部 古墳은 良好한 모습이 確認되었다. 區域 內 西便에는 積石木槨墓가 分布하며, 東便에는 石槨墓가 群集을 이룬 모습이 確認된다.

2) B地區

A地區 남쪽에 隣接한 B地區는 皇吾洞 53號墳이 位置한 丘陵部(海拔高度 44m 内外)로 東高西低의 地形이 나타난다. 調査結果 三國時代 墳墓遺構가 141基 確認되었으

며 그 중 積石木槨墓 41基, 木槨墓 66基, 石槨墓 9基, 甕棺墓 12基, 埋納大壺 7基이다. 丘陵部에는 비교적 中形 또는 中・小形級の 積石木槨墓가 한 基씩 單獨으로 造成되거나 혹은 連接하여 稠密하게 分布되어 있는 반면, 丘陵에서 平地로 연결되는 地點에는 너비 1.5m 内外의 木槨墓, 小形 積石木槨墓, 石槨墓가 確認되는데 墓制別로 群集을 이루고 있다. 또한 丘陵의 서쪽에서는 4世紀代 木槨墓가 分布하고 있고, 丘陵을 따라 올라오면서 漸次 5世紀代 木槨墓가 점점이 確認되는데, 6世紀代 들어서면서 積石木槨墓의 墓域을 이루면서 築造된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現在 調査 中인 積石木槨墓의 墳丘 아래에서는 先代의 木槨墓가 確認될 可能性이 크다.

3) C地區

C地區는 A地區의 동쪽, D地區의 북쪽에 位置한다. 地形은 A地區와 同一한 微高地가 낮아지는 低地帶로 丘陵 사이의 谷澗地形이다(海拔高度 42m 内外). C地區 東便에는 中・小形級の 45・47號墳이 殘存해 있었던 곳으로 護石과 封土 一部를 確認하였다. 調査結果 三國時代 墳墓遺構는 48基 確認되었으며 積石木槨墓 6基, 木槨墓 31基, 石槨墓 6基, 埋納大壺 5基이다. A地區와 마찬가지로 小形墓가 主를 이루며 積石木槨墓는 동쪽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4) D地區

D地區는 B地區의 동쪽, C地區의 남쪽에 位置한다. 未撤去된 部分으로 인해 調査範圍가 狹小하여 調査區域 全面에 Trench를 配置하지 못하였다. 49號墳은 民家에 의해 封墳이 一部 破壞되었으나 殘存한 狀態로 남아있었다. 調査結果 三國時代 墳墓는 11基로 積石木槨墓 4基, 木槨墓 6基, 埋納大壺 1基이다. 다른 地區에 비해 遺構 數가 적으며 密集度 또한 낮게 나타난다.

5) E地區

E地區는 A地區의 北西쪽에 位置한다. 調査는 封土가 殘存한 44號墳과 民家가 位置하였으나 낮은 언덕으로 남아 있는 30-1號墳, 41號墳을 中心으로 Trench를 十字狀으로 配置하여 古墳의 存在를 確認한 후 擴張 調査하였다. 이후 調査區域의 남동쪽에 Trench를 配置하여 分布調査를 實施하였다. 調査結果 三國時代 墳墓는 48基로 積石木槨墓가 24基, 木槨墓 20基, 石槨墓 3基, 埋納大壺 1基이다. 調査區域 남서쪽에 대

한 分布調査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생각한다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E地區는 積石木槨墓가 集中되는 部分과 墳墓가 分布하는 部分으로 區分된다.

6) F地區

F地區는 쪽샘地區의 最北端에 位置하며 南서쪽에는 E地區가 南동쪽에는 G地區가 隣接한다. 북쪽에는 팔우정 삼거리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太宗路(구 대구도로)가 隣接해 있고 쪽샘地區에서 古墳群의 북쪽 境界部分으로 判斷된다.

調査는 먼저 20m×20m Grid를 設定한 뒤 區劃線에 따라 一定하게 配置된 Trench를 통해 調査區域의 토층과 積石木槨墓의 大략적인 位置를 把握하였다. 이후 幅 2m 크기의 독을 남겨가며 Grid 内部의 近・現代層과 遺物包含層을 除去하였다. 除土作業은 作業에 便宜에 따라 N190Line Grid는 西에서 東으로, N170Line Grid는 東에서 西로 進行하였다. 콘크리트 基礎施設과 排水施設이 남아있었고 그로 인해 古墳 일부가 破壞되었다. 高麗・朝鮮時代遺物包含層은 古墳이 露出되는 狀況에 따라 手作業으로 調査하였다. 位置가 把握된 積石木槨墓는 明確한 規模와 形態를 把握하고자 封土와 護石을 露出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 Pit와 독을 적절히 설정하여 古墳 간에 築造 順序 등을 把握하였다.

그 結果 中 44基에 遺構가 確認되었다. 이中 三國時代 墳墓遺構는 40基로 積石木槨墓 등 30基, 木槨墓 5基, 石槨墓 1基, 甕棺墓 2基, 埋納大壺 2基이다.

7) G地區

G地區 北便 一帶는 F地區에서 동쪽으로 팔우정 삼거리까지 이어진 地點으로, F地區와 마찬가지로 積石木槨墓가 높은 密集度로 分布하고 있다. 이 地域은 皇吾洞古墳群에서 39號墳(東西直徑 43.4m, 高 11.3m)과 팔우정삼거리에 位置한 3號墳(瓢形墳, 南北直徑 42.8m, 高 4.1m) 사이의 微高地를 形成하는 地點이다. 1926년에 作成된 高塚古墳分布圖에서 確認된 3基의 古墳 또한 北便 一帶에서 確認된다. 이 中 3號墳은 이미 整備가 이루어진 狀態이며, 2號墳과 35號墳은 G地區 分布調査에서도 確認되었다. 3號墳의 北西便 調査區域 바깥에 位置한 1號墳은 1965年 서울大學校 博物館에서 調査하여 先築된 南槨과 後築된 北槨으로 構成된 6世紀 初 新羅의 貴族 夫婦墓로 推定된 바 있다.¹⁶⁾

16) 金元龍, 1969, 위의 책.

G地區의 가운데 區域은 木槨墓가 集中的으로 分布하며, 드러난 生土層 위에 墳墓의 埋葬主體部 掘墳線과 埋納遺物이 一部 露出된 狀態로 確認된다.

調査區域 南便 一帶에서는 護石과 封墳을 갖춘 積石木槨墓는 1基만 確認되었고 그 외 遺構들은 削平되어 生土面 上에서 墓墳만 確認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비교적 規模가 큰 埋葬主體部와 主·副槨을 갖춘 埋葬施設이 多數 確認되어 擴張調査를 實施하였다. 擴張調査 結果 墓墳 内部에 積石으로 추정되는 돌이 露出된 墳墓가 多數 確認된다. 分布 調査를 통해 確認된 遺構는 147基로 積石木槨墓 36基, 木槨墓 93基, 石槨墓 9基, 甕棺墓 5基, 不定形 遺構 4基이다.

표 1. 慶州 岾峇地區 新羅古墳遺蹟 調査 現況

區分	A地區	B地區	C地區	D地區	E地區	F地區	G地區
面積	4,206㎡	11,925㎡	5,687㎡	3,391㎡	8,628㎡	2,713㎡	10,435㎡
기 보고된 古墳	1基	6基	4基	3基	6基	5基	3基
確認 遺構	積石木槨墓 2基 木槨墓 18基 石槨墓 5基 甕棺墓 2基 埋納大壺 10基	積石木槨墓 41基 木槨墓 66基 石槨墓 9基 甕棺墓 12基 埋納大壺 7基	積石木槨墓 2基 木槨墓 31基 石槨墓 6基 埋納大壺 5基	積石木槨墓 1基 木槨墓 6基 埋納大壺 1基	積石木槨墓 18基 木槨墓 20基 石槨墓 3基 埋納大壺 1基	積石木槨墓 25基 木槨墓 5基 石槨墓 1基 甕棺墓 2基 埋納大壺 2基	積石木槨墓 33基 木槨墓 93基 石槨墓 9基 甕棺墓 5基 채토遺構 4基
	37基	135基	44基	8基	42基	35基	143基
合計	38基	141基	48基	11基	48基	40基	147基



그림 2. 쪽샘地區 遺構 分布圖(2007年~2015年 分布調査)

Ⅲ. 쪽샘地區 墳墓群 構成과 連接 配置

1. 쪽샘地區 墳墓群 構成(그림 2·3 참조)

쪽샘地區는 平地로 認識되고 있으나 月城에서부터 北西쪽으로 낮아지는 微高地(海拔高度 41~44m)이다.¹⁷⁾ 쪽샘地區 주변 사면에는 현재의 도로가 둘러싸고 있다. 그 중 쪽샘地區 北端의 東·西로 가로지르는 太宗路는 舊地表의 丘陵部 末端 低地帶로 생각된다. 현재의 太宗路 북쪽의 商街區域은 쪽샘地區보다 1~2m 아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옛 市廳敷地 發掘調査에서 確認된 舊地表의 海拔高度는 36.5~37.5m¹⁸⁾로 쪽샘地區보다 약 4.5m 정도 낮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多年間의 發掘調査를 통해, 쪽샘地區

17) 月城北古墳群 地域의 地形도 전체가 똑같은 평지가 아니라 微高地와 低地帶들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古墳들은 그 가운데 주로 微高地에 築造되었을 것이다(최병현, 2014, 『慶州 月城北古墳群의 形成 過程과 新羅 麻立干 時期 王陵의 配置』, 『韓國考古學報』第90輯, p.133).

18) 新羅文化遺産研究院, 2014, 『경주 노동동 12번지 경주역사문화관 건립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에서는 木槨墓, 積石木槨墓, 石槨墓, 甕棺墓 등의 墳墓遺構와 祭儀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非墳墓遺構¹⁹⁾와 祭儀物(祭儀物)²⁰⁾이 일정한 空間에 密集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大陵園과 鳳凰臺區域에서 存在하는 直徑 30m 以上の 大形墳과 慶州盆地를 둘러싼 丘陵에서 確認되는 圓形의 石室墳은 아직까지 確認되지 않고 있다.

쪽샘地區 內에서 最北端의 調査區域은 E地區, F地區, G地區로 동쪽의 팔우정 삼거리에서 서쪽의 鷄林路 삼거리까지 積石木槨墓가 東西로 빈틈없이 들어차 있다. 이는 高塚古墳分布圖상의 配置와 동일하며 여기에 表示된 古墳 이외에는 이미 많은 削平이 되었던 것으로 把握된다. 즉 古墳이 만들어지고 일정기간 維持・管理되던 이후, 破壞가 계속해서 일어났으며 1920年代 당시 일정 높이 이상의 封墳이 남아있는 古墳은 表示가 되었고 封墳이 낮아 平坦化된 古墳은 確認되지 않은 것이다.²¹⁾ 範圍를 넓게, 高塚古墳分布圖를 살펴보면 大陵園과 쪽샘地區의 最北端(東-西, 4號-155號)과 鳳凰臺區域 最北端(東-西, 125號-130號)에 大形墳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大陵園 西便 末端部(南-北, 102號-155號)와 鳳凰臺 區域 西便 末端部(南-北, 139號-130號)에도 大形墳이 자리하고 있다. 즉 北西쪽으로 낮아져 低地帶로 이어지는 각 微高地 末端部에 境界의 의미로 標識적인 大形墳을 만들어 墓域의 限界를 정한 것은 아닐까.²²⁾

調査區域의 中央 部位에 該當하는 A地區・B地區・C地區・D地區에서는 B地區 53號墳(海拔高度 44m)의 立地가 가장 높다. 53號墳을 中心으로 丘陵 남쪽과 서쪽에 積

19) 박보현은 ‘반월성 서북지대의 共同墓地區域에는 埋葬主體部가 없으면서 主墳의 外護石에 붙어 甕棺・構造物・副槨・土器群 등으로 불리는 非墳墓遺構가 散在한다.’고 하며 ‘非墳墓遺構라는 것은 主體部에 매달린 것이 아닌 封土나 外護石 주위에 토기 등을 묻은 遺構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積石木槨墳의 築造과정에서 어디까지가 葬禮이고 祭祀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유해를 둘러싼 棺槨은 일차적으로 장례적인 성격으로 보고 外護石, 封土, 積石 등의 부분은 2차적인 제사적인 성격으로 보고자 한다.’고 하였다(박보현, 1992, 「積石木槨墳기 비분묘유구의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10호, 한국상고사학회).

20) 김동숙은 ‘매장공간 밖에 제의행위의 흔적으로 남겨진 遺構와 유물 모두를 “祭儀物”이라는 용어로 정의 한다.’하였다(김동숙, 2002, 「新羅・伽倻 墳墓의 祭儀遺構와 遺物에 관한 研究」, 『영남고고학』 30號, 영남고고학회). 본고에서는 구조물 없이 유물만 確認되는 경우에만 ‘祭儀物’로 구조물의 매장(납)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는 ‘非墳墓遺構’로 사용한다.

21) 封墳 直徑이 略 30m 未滿의 무덤은 毀損된 境遇를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 近・現代 慶州市街地의 擴大로 인해 宅地를 조성하면서 封墳을 깎아냈기 때문이다. 또한 大陵園 内部의 古墳은 古墳公園으로 정비될 때 겉모습을 다듬었으나 다른 곳의 무덤은 대체로 자연스런 세월의 흔적을 지닌 채 그대로이다(咸舜燮, 2010, 「皇南大塚을 둘러싼 論爭, 또 하나의 可能性」, 『황금의 나라 新羅의 왕릉 皇南大塚』, p.228).

22) 최병현은 ‘月城北古墳群에서 皇南大塚 남분을 中心으로 초대형분 5기의 配置에 기획성이 보이고, 이는 곧 왕릉비정으로 연결되어 皇南大塚 남분은 내물마립간의 능으로 비정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최병현, 2014, 「慶州 月城北古墳群의 形成過程과 新羅 麻立干時期 王陵의 配置」, 『韓國考古學報』第90輯, pp.121~123 참조).

石木槨墓가 稠密하게 모여 있음이 確認된다. B地區의 北便에 隣接한 A地區 西便은 低地帶로 약 1m 内外의 높이 差異가 있고 53號 北便에는 積石木槨墓가 確認되지 않는다. 그리고 B地區에서는 積石木槨墓가 既存의 木槨墓를 破壞하고 造營되는 것이 一部 確認된다.²³⁾ 이는 이 地域을 占有하여 既存의 무덤을 破壞하고 墓域으로 活用한 것을 보여주는 例로 생각된다.²⁴⁾

각 地區의 微高地 周邊에는 低地帶로 把握되는 A地區 東便과 C地區 西便 사이, B地區 南편, G地區 中央部 등이 있다. 積石木槨墓가 微高地 상에 만들어져 微高地에 새로운 高地帶가 形成되고 低地帶에는 木槨墓群과 石槨墓群 그리고 甕棺墓가 積石木槨墓를 피해서 造營되었던 것으로 把握된다. 이는 積石木槨墓 이외의 墳墓群이 既存 積石木槨墓를 破壞하고 만들어지는 現狀은 아직까지 觀察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積石木槨墓 이후 墳墓를 만든 集團들은 積石木槨墓의 存在를 분명히 認識한 것으로 보인다.²⁵⁾

高塚古墳分布圖와 쪽샘地區 遺構分布圖를 살펴보면 큰 古墳을 中心으로 이 보다 작은 古墳들이 모여 있는 現狀이 觀察된다. 이는 墳墓의 規模와 位階에 따라 群集 樣相의 差異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現在 쪽샘地區에서는 分布調査가 進行 중이고 大陵園과 鳳凰臺 區域에서는 分布調査가 實施된 바 없어 墳墓 그룹화를 통한 位階는 調査가 더 進行된 후 確認하는 것이 明確하겠다. 그러므로 각 小集團間의 位階差異²⁶⁾ 혹은 時期의 問題는 向後 大陵園과 鳳凰臺 區域의 分布調査 實施와 쪽샘地區의 分布調査 마무리 結果를 기대해 본다.

23)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2013, 위의 책.

24) B地區 교란층에서는 노형토기, 통형대각, 광구소호 등 3세기대 와질토기와 4세기대 토기가 수습되었으며 C地區에서도 木槨墓 간에 破壞가 일어난 것이 確認되었다. 이는 선축분의 인식이 어려워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2014, 위의 책, p.55). 護石과 높은 封土가 없던 木槨墓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護石과 높은 封土로 이루어진 積石木槨墳은 후축되는 墳墓에 의한 破壞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25) 積石木槨墓의 구조적 특징은 크게 木槨部, 積石部, 封土部, 護石部로 정리된다. 여기에 쪽샘地區 調査 내용을 더하면 護石外部의 礫石層이 確認된다(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2014, 위의 책; 박형열, 2016, 「新羅 地上式 積石木槨墳의 발생에 대한 일고찰」, 『嶺南考古學』 75號, pp.77-78). 쪽샘地區에서 確認되는 積石木槨墓는 護石이 있으며 封墳의 높이가 直徑에 비례해 일정하게 남아있다. 즉 封土의 流失이 護石으로 인하여 더디게 進행되었으며 이후의 시기에 무덤을 造營한 集團은 既存의 墳墓를 명확하게 認知한 것으로 判斷된다.

26) 최병현은 ‘月城北古墳群에서는 이들이 墓槨部의 構造 차이만이 아니라 高塚化 여부와 함께 분명한 위계 차이를 갖고 築造되었다. 이들의 묘제의 위계에 따른 점유 位置의 차이도 함께 보여준다.’고 하였다(최병현, 2016, 「新羅 전기 積石木槨墳의 출현과 慶州 月城北古墳群의 묘제 전개」, 『문화재』 40호, pp.121~123 참조).



그림 3. 高塚古墳分布圖

2. 쪽샘地區 墳墓의 連接 配置(그림 4·5·6, 표 2 참조)

쪽샘地區는 慶州盆地 內 海拔 41m~44m 內외의 北西-南東으로 긴 橢圓狀의 微高地(微高地)에 位置한다. 南高北低形을 基本으로 하며 東高西低形을 보인다. 이러한 地形위에 東西直徑 30m 未滿의 中·小形墳이 一定 區域 안에 빈틈없이 모여 있다.²⁷⁾ 墓制別로 群을 이루어 造營되었음도 밝혀지고 있다.

積石木槨墓는 微高地 地域에, 이외의 墓制는 低地帶의 地域에 分布한다. 積石木槨墓는 單一墳과 連接墳(連接墳)²⁸⁾의 形態로 祭儀와 관련된 非墳墓遺構와 함께 婚材되어 存在한다. 앞장에서 言及한 積石木槨墓의 破壞는 護石의 一部와 封土를 切開하여 護石을 덧대어 만드는 行爲의 하나다. 쪽샘地區에서는 護石과 封土의 破壞 없이 덧대는 現狀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瓢形墳 또한 2基의 古墳이 붙어 만들어진 것으로 連接墳 範疇에 包含된다.

大陵園과 以外の 地域에서 보이는 瓢形墳은 多數가 大形墳 혹은 中形墳의 範疇²⁹⁾에 들어가는 例가 많고, 皇南大塚의 發掘調査 結果 先築의 南墳에 後築의 北墳이 붙어 만들어진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瓢形墳과 連接墳은 북쪽 方向으로 連接하는 것은 대체적인 現狀이다. 그러나 積石木槨墳의 護石을 완전히 露出하고 周邊 遺構와의 先·後 關係를 把握한 調査例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쪽샘地區 分布調査는 調査 對象 地區의 墳墓配置 樣相을 把握할 수 있는 調査로써 護石의 連接 形態를 把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連接 樣相을 把握하는데 최우선으로 護石 露出 調査가 實施되어야 한다. F地區와 G地區의 調査에서는 連接된 護石부의 露出을 통하여 護石 連接의 세 가지 類型³⁰⁾과 單一墳과 連接墳의 築造순서³¹⁾

27)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2014, 위의 책, p.53.

최병현, 2016, 위의 글, p.170 주5 참조.

쪽샘地區의 未發掘 지역에는 封墳이 일부 남아있는 廢古墳과 分布調査가 남아있어 直徑 30m 이상 급의 古墳도 確認될 가능성이 있다. 向後 古墳規模에 대한 分類基準 또한 마련되리라 생각한다.

28) 심현철은 ‘먼저 築造된 古墳에 확장 또는 추가의 개념으로 古墳을 더하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連接, 增築, 重複 등이 있음을 밝히고 連接의 용어가 封墳의 수평적으로 확장해 나감에 있어 封墳의 단순한 重複과 破壞가 아닌 分명한 의도성과 기획성이 있다는 점이 중요함’을 주장하며 “連接築造”, “連接(古)墳”이라 칭하여 단순중복의 古墳들과 뚜렷이 구분하고자 한다.’고 하였다(沈炫敝, 2014, 「三國時代 嶺南地方 封土墳의 連接築造에 관한 研究」, 『고고광장』 15집, pp.40~42 참조).

29) 최병현은 ‘잠정적으로 35m 이상을 大型, 35m~15m 내외를 中型, 그 이하를 小型으로 한다.’고 하였다(최병현, 2016, 위의 글, p.170 주 5 참조).

30) 쪽샘地區에서 連接墳의 세 가지 連接樣相은 하나, 첫 번째 선축된 古墳의 護石 전면에 연하여 築造된 형태, 둘, 先築된 古墳의 封墳 위에 얹혀진 형태, 셋, 先築된 古墳의 護石과 封土를 切斷 후 切斷面に 연하여 築造된 形態가 確認된다(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2014, 위의 책, pp.110~111).

31) 쪽샘地區 分布調査에서는 精密 内部調査를 實施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의 古墳의 先·後 關係를 連接墳의 護石 連接상황과 單一墳과 連接墳이 혼재된 區域에서 護石 1단 外部의 礫石層(잔자갈다짐) 探

를 把握하였다. 積石木槨墓의 구조적 特徵으로 木槨部, 積石部, 封土部, 護石部로 정리된다. 여기에 쪽샘地區 調査에서 밝혀진 特徵 하나를 더한다면 封土 끝자락에 礫石 다짐을 하여 護石을 쌓고 封土를 築造하는 樣相이 많이 把握되고 있다. 특히 中・小型 墳의 連接墳과 單一墳이 혼재하는 區域 일수록 護石 外壁 1段에 잔자갈을 깔아 다짐하는 樣相이 많이 把握된다. 이러한 樣相이 쪽샘地區 전체와 大陵園의 超大型 積石木槨墓 護石 外部까지 適用되는 것인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調査에서는 매우 頻度 높게 나타나고 있다.³²⁾

쪽샘地區에서 確認된 連接墳의 連接方向과 隣接墳의 築造 方向은 北西쪽으로 낮아지는 地形의 特性을 高麗하여 北西方向으로 連接하여 혹은 隣接하여 築造되는 樣相이 把握된다. 이는 積石木槨墳 護石에서도 살필 수 있다. 北便이나 北西便 護石段이 舊地表가 높은 남쪽편 護石段의 段數보다 1~2段 많음이 觀察된다. 쪽샘 44號墳(東西直徑 27m, 南北直徑 23m)에서도 舊地表가 높았던 南東便의 護石 1段과 舊地表가 낮은 北西便의 護石 1段的 높이 差異는 약 0.5~0.7m 정도 난다. 이러한 舊地形의 높이 差異는 地形의 平坦化 作業 없이 護石의 段數를 調定하여 護石 最上段에서 水平을 맞춘 것으로 把握된다.³³⁾

索坑의 土層調査를 통해 先築墳과 後築墳의 先・後 關係를 把握하였다. 大陵園에 비해 무덤의 크기가 작고 密度가 높은 쪽샘地區에서는 連接하거나 隣接한 古墳 간의 土層觀察이 용이하였다. 특히 護石 외부의 잔자갈 다짐은 선축된 古墳에서 채용하고 隣接하여 후축되는 古墳에서도 礫石層 施設을 하기 때문에 가까이 隣接한 古墳마다 護石외부 礫石 다짐의 層位가 뚜렷하게 確認된다. 또한 護石의 平面 配置 형태를 통해서도 隣接한 古墳과의 先・後 關係도 살필 수 있었다. 護石의 평면형태를 잘 觀察하면 좁은 區域에서 선축된 護石과 隣接해 후축되는 護石의 平面이 先築된 護石을 피하여 급격히 각을 트는 形態가 종종 觀察 된다(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2015, 위의 책, pp.59~84).

32)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2014, 위의 책.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2015, 위의 책.

33) 쪽샘地區에서 調査되거나 觀察되는 積石木槨墓의 築造樣相은 구지표의 사면경사도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把握된다. 묘광의 바닥면은 비교적 고르게 整地하여 수평을 잡는다. 그러나 整地面이 넓고 굴착해야 되는 양이 많아지는 封土部와 護石部の 바닥면은 표면만 고르고 낮아지는 기울기를 그대로 활용하고 護石의 단수를 조정하여 護石 상단의 높이를 돌아가며 맞춘 것으로 把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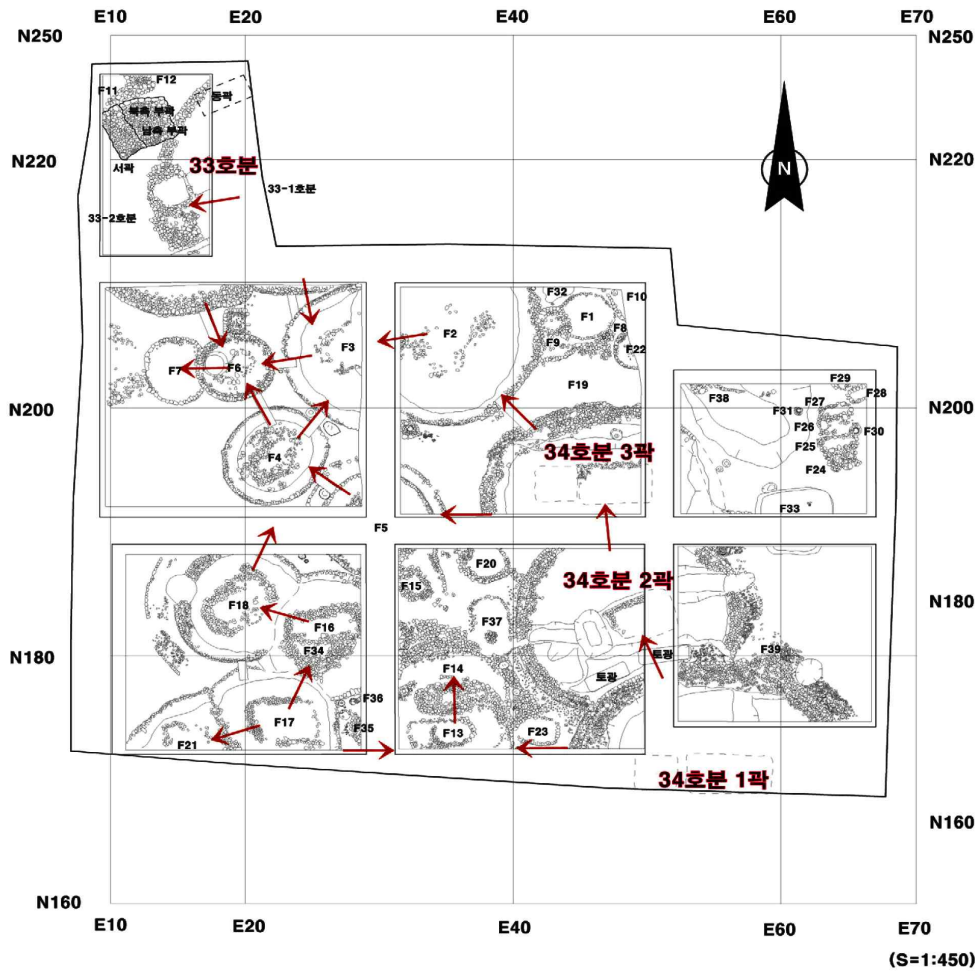


그림 4. F地區 內 遺構 築造 順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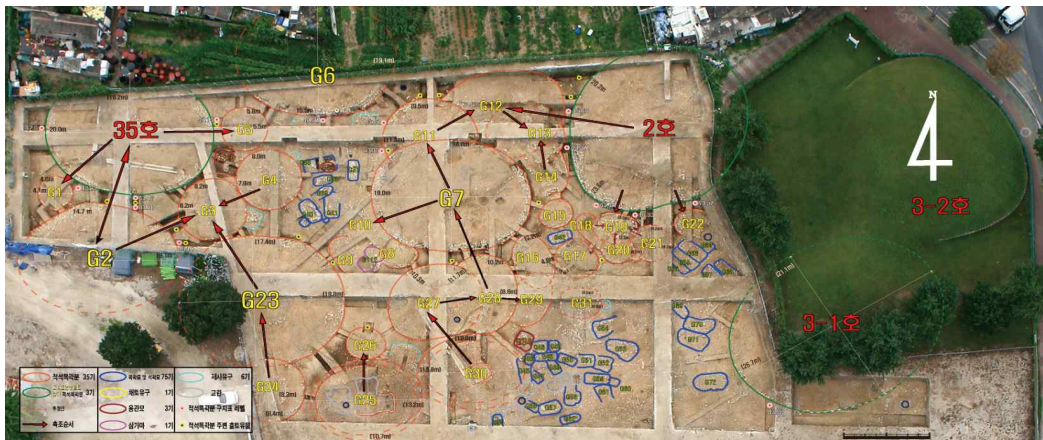


그림 5. G地區 遺構 築造 順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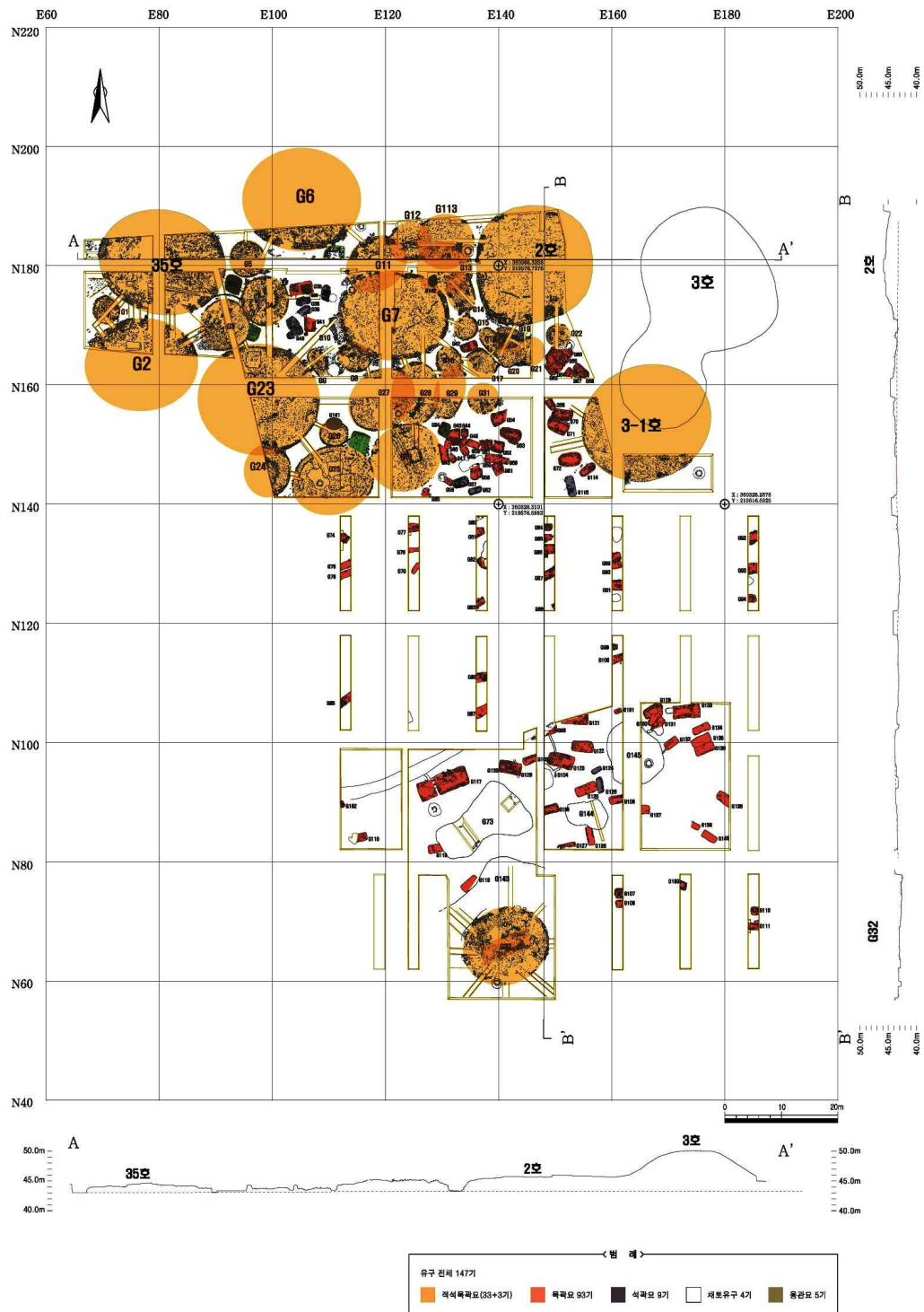


그림 6. 쪽샘 G地區 遺構 配置圖

IV. 맺음말

以上과 같이 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遺蹟 發掘調査에 대하여 調査內容을 간략히 살펴보고 몇 가지 現狀에 대하여 檢討해보았다.

쪽샘地區 新羅古墳遺蹟은 月城의 北西쪽 微高地에 形成된 大規模 古墳群이다. 大陵園의 墳墓에 비해 크기가 相對的으로 작고 限定된 區域 內에 密集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쪽샘地區의 墳墓群 構成과 連接 配置를 檢討한 結果, 각 微高地 內에 形成된 丘陵에는 南쪽 末端部에서부터 北西쪽 方向으로 東西로 羅列하여 北쪽 末端部까지 連接과 隣接으로 積石木槨墓가 築造되었음을 把握하였다. 墓域의 北쪽 境界는 지금의 太宗路로 판단된다. 微高地 사이의 低地帶에는 木槨墓群과 石槨墓群, 그리고 甕棺墓가 자리한다. 積石木槨墓 사이의 빈 空間에는 祭儀와 관련된 非墳墓遺構와 祭儀物이 配置되어 있다. 쪽샘地區 墳墓群 構成과 連接樣相을 高塚古墳分布圖와 함께 檢討하여 大陵園과 鳳凰臺 區域의 大形墳도 微高地에 築造되며 微高地 南端에서 北西쪽 方向으로 築造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大陵園과 鳳凰臺 區域의 각 丘陵의 북쪽과 서쪽 末端部에는 大型의 古墳을 築造하여 墓域 境界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推論도 해보았다.

2007년부터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에서 쪽샘地區 新羅古墳 發掘調査를 實施하고 있으며 向後 몇 年間の 調査가 남아있다. 쪽샘地區의 分布調査가 古墳群 全體를 眺望하며 新羅古墳研究의 論難이 되고 있는 많은 問題들을 풀어낼 것을 기대한다.

參考文獻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2011, 『慶州 쪽샘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I-A地區』.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2012, 『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Ⅱ-C地區 發掘調査 報告書』.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2013, 『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遺蹟Ⅲ-B1號 發掘調査 報告書』.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2014, 『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遺蹟Ⅳ-A·C~F地區 分布調査 報告書』.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2015, 『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遺蹟Ⅴ-G地區 分布調査 報告書』.
- 國立慶州博物館·慶北大學校博物館, 1990, 『慶州市月城路古墳群』.
- 國立慶州博物館·慶北大學校博物館, 2003, 『慶州 仁旺洞 遺蹟-협성주유소 부지』.
- 國立慶州博物館, 2010, 『慶州 鷄林路 14號墳』.
- 金元龍, 1969, 「皇吾里 第一號墳」, 『慶州 皇吾里 第一·三三號, 皇南里 第一五一號 古墳發掘 調査報告』.
- 金元龍, 1976, 『韓國考古學年報』3, 서울大學校 博物館.
- 金宅圭·李殷昌, 1975, 『皇南洞古墳發掘調査報告』, 嶺南大學校博物館.
- 姜友邦, 1973, 「慶州市鷄林路發掘速報」, 『博物館新聞』第30號, 國立中央博物館.
-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2008, 『慶州 皇吾里 100遺蹟 I』.
- 文化財管理局 慶州史蹟管理事務所, 1975, 『慶州地區古墳發掘調査報告書』第一輯.
- 文化財管理局 慶州史蹟管理事務所, 1975, 『慶州地區古墳發掘調査報告書』第二輯.
- 新羅文化遺產研究院, 2014, 『경주 노동동 12번지 경주역사문화관 건립부지 내 遺蹟 발굴조사 약보고서』.
- 李准求, 1973, 「慶州鷄林路 出土遺物」, 『博物館新聞』第29號.
- 洪恩俊·金正基, 1964, 「皇吾里 四·五號墳發掘調査報告書」, 『皇吾里 四·五號, 皇南里 破壞墳 發掘調査報告書』.
- 韓炳三, 1973, 「慶州 鷄林路 新羅古墳發掘調査」, 『博物館新聞』第29號.
- 秦弘燮, 1960, 「慶州 皇吾里 古墳發掘調査略報告」, 『美術資料』2, 國立中央博物館.
- 秦弘燮, 1967, 「慶州 皇吾里古墳 發掘調査 概要」, 『考古美術』85, 韓國美術史學會.
- 秦弘燮, 1969, 「皇吾里 第三三號墳」, 『慶州 皇吾里 第一·三三號, 皇南里 第一五一號 古墳 發掘調査報告』, 文化財管理局.
- 강진아, 2009, 「慶北大學校 博物館 所藏 慶州地域 出土 馬具의 檢討」, 『慶北大學校 博物館 年報』 제7호, 慶北大學校 博物館.

- 김동숙, 2002, 「新羅·伽倻 墳墓의 祭儀遺構와 遺物에 관한 研究」, 『영남고고학』 30號, 영남고고학회.
- 다카하시 코지(高橋浩二), 2011, 「味鄒王陵地區古墳群 및 皇吾洞34號墳 출토 翡翠曲玉」, 『考古學論叢 慶北大學校 考古學科30周年記念』, 慶北大學校出版部.
- 류진아, 2010, 「慶州 皇吾洞 34호 出土 裝身具類 報告」, 『慶北大學校 博物館 年報』 제8호, 慶北大學校 博物館.
- 박보현, 1992, 「積石木槨墳期 非墳墓遺構의 性格」, 『한국상고사학보』 제10호, 한국상고사학회.
- 박형열, 2016, 「新羅 地上式 積石木槨墳의 발생에 대한 일고찰」, 『嶺南考古學』 75號.
- 沈炫澈, 2014, 「三國時代 嶺南地方 封土墳의 連接築造에 관한 研究」, 『고고광장』 15집.
- 이하나, 2009, 「慶北大學校 博物館 所藏 慶州地域 古墳出土 農工具」, 『慶北大學校博物館年報』 제7호, 慶北大學校 博物館.
- 咸舜燮, 2010, 「皇南大塚을 둘러싼 論爭, 또 하나의 可能性」, 『황금의 나라 新羅의 王陵 皇南大塚』.
- 최병현, 2014, 「慶州 月城北古墳群의 形成過程과 新羅 麻立干時期 王陵의 配置」, 『韓國考古學報』 第90輯.
- 최병현, 2016, 「新羅 前期 積石木槨墳의 出現과 慶州 月城北古墳群의 墓制 展開」, 『문화재』 40호.

【Abstract】

Composition of Ancient Tombs and Their Grouping Array
in Jjoksaem Areas, Gyeongju

Kim Bo-sang

The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s responsible for the excavation and investigation of the remains of Silla ancient tombs in the Jjoksaem Areas in Gyeongju. In these areas, the remains of ancient villages are steadily being destroyed due to the construction of private houses. The Jjoksaem Areas comprise small and medium-sized ancient tombs located in the eastern sector of the Daereungwon Ancient Tomb Complex. The survey of Zones A to G, conducted from 2007 to 2015, was summarized, and several features were examined. Our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Jjoksaem Areas consist of a large number of ancient tombs in the relatively elevated areas where the Seocheon and Bukcheon streams meet at the Wolseong Palace Site. In a smaller and limited area, compared to the Daereungwon Ancient Tomb Complex, single mounds and grouped tombs are clustered together.

The survey of the composition of the ancient tombs and their grouping in the Jjoksaem Areas revealed that, in the hills in the elevated areas, single mounds and grouped tombs are aligned from east to west from the end of southwest, adjoining together until the end of north. The northern border of the tomb area is considered to be present-day Taepyeongno. The lower areas lying between the higher areas contain wooden chamber tombs, stone chamber tombs, and jar coffin tombs, while the empty spaces between the wooden chamber tombs with stone mound contain ritual objects unrelated with the tombs and the remains of offerings. The examination of the composition of the ancient tombs and tomb grouping patterns in the Jjoksaem Areas, together with the distribution pattern of high mound tombs revealed that, in the Bonghwandae Tomb area, large tombs were constructed in the elevated areas, from the end of south to northwest. Furthermore, in the Daereungwon and Bonghwangdae areas, at the north and western ends of each hill, large tombs were constructed to form the tomb border.

Key words : Wooden chamber tomb with stone mound, Silla ancient tomb, grouped tombs,
composition, array

“慶州 倭冢地區 墳墓群 構成과 連接 配置”에 대한 討論文

金 龍 星*

이 발표문은 발표자가 몸담고 있는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에서 그동안 조사를 진행한 경주 倭冢地區의 古墳 分布調査와 일부 發掘調査를 종합하여 정리한 다음, 분포 상에서 큰 특징으로 나타난 連接 配置를 중심으로 약간의 해석을 실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조사 내용의 종합이기 때문에 發表文의 어떤 내용에서 문제를 끄집어내 討論에 대하기는 좀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討論者가 생각하고 있는 倭冢地區의 古墳들에 대한 관념을 기반으로 앞으로 이 倭冢地區 古墳들의 이해에 심도를 더해갈 수 있는 방향의 설정이란 점에 초점을 두어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한다.

1. 遺蹟의 소개 부분에서 다른 지구와 달리 B지구에는 4세기대의 木槨墓가 분포하고, 이들을 파괴하고 들어선 積石木槨墓가 들어섰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각주에 B지구 교란층에서는 爐形土器, 筒形臺脚, 廣口小壺 등 3세기대 瓦質吐器와 4세기대 土器가 수습되었으며 C지구에서도 木槨墓 간에 파괴가 일어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다른 지구에서는 4세기대의 木槨墓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았는데, 분석의 결과가 이들 지구에 한정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러한 상태는 지금까지 分布調査가 진행된 구역 가운데 이들 지구뿐인지가 알고 싶다. 후자라면 新羅文化遺産研究院에서 조사한 倭冢地區 南단의 3세기대 木槨墓가 北으로 전진하며 확장되어 B지구까지 分布하고 그 위에 다시 積石木槨墳들이 들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믿어도 될 것인지 알고 싶다. 또한 다른 地區에 4세기대의 木槨墓가 분포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지구에는 5·6세기에만 古墳이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러한 현상이 확실한지 알고 싶다.

* 한빛文化財研究院

2. 遺蹟 소개를 하면서 墓制의 구분을 積石木槨墓, 木槨墓, 石槨墓, 甕棺 등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石槨墓와 甕棺은 구분이 확연하나 木槨墓와 積石木槨墓는 어떻게 구분하였는지 알고 싶다. 木槨墓로 분류한 것 가운데는 四方積石式 積石木槨墓, 石材充墳木槨墓 또는 圍石式木槨墓 등으로 불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G지구의 木槨墓로 구분된 遺構에 石材의 充墳 모습이 보인다) 그러하다면 이들을 純粹木槨墓(粘土充墳木槨墓)와 구분할 때 각각 어느 정도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3. 大陵園과 慶州盆地를 둘러싼 구릉에서 확인되는 圓形石室墳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하다면 쪽샘地區를 포함한 大陵園地區古墳群(月城北古墳群)에는 이미 알려진 西鳳凰臺 주변의 牛塚과 馬塚, 皇南大塚 주변의 石室墳, 151호분 외에는 28호~30호분 등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분포는 28호~30호분을 제외하면 古墳群 西北쪽 超大型墳 주위에만 石室墳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의미가 심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혹시 조사하고 있는 쪽샘地區 내에 石室墳 단계의 遺物이나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지 알고 싶다.
4. F지구와 G지구의 조사를 통하여 連接墳의 連接方式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주에서 첫째 선축된 古墳의 護石 전면에 연하여 축조된 형태, 둘째 선축된 古墳의 封墳 위에 얹혀진 형태, 셋째 선축된 古墳의 護石과 封土를 절단 후 절단면에 연하여 축조된 형태가 확인된다고 하였다. 이중 첫째와 둘째의 구분은 封墳을 복원할 때 어떤 구분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첫째의 경우 선축분에 후축분을 이을 때, 즉 선축분의 護石 바깥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후축 묘곽을 설치한 것이고, 둘째의 경우 선축분의 護石 바로 바깥에 후축 묘곽을 설치하고 封墳을 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기 바란다. 다음에 세 가지 형태의 連接方式에서 위계 차나 시간 차 등을 읽을 수는 있는지도 알고 싶다.
5. 非墳墓遺構와 祭儀物로 표현된 것은 모두 축조 당시와 후대의 墳墓 祭祀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설이나 遺物은 封墳과 護石의 바깥에 설치되거나 埋納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상을 파악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遺構와 遺物을 좀 더 상세하게 분류하고 각각을 설명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에서는 어떤 遺物들이 확인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6. <그림 2>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조사된 中大型 封土墳들의 群集을 설정하면 대략 E지구의 동군집과 서군집, A지구와 B지구의 동군집과 서군집, C지구 군집, D지구 군집, F지구 군집, G지구 동군집과 서군집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리겠지만 이러한 군집별로 고려했을 때 先後關係가 파악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즉 발표문대로 비교적 큰 封墳을 가진 것이 먼저 축조되고 그들 사이에 작은 古墳들이 채워지는 양상이라면 비교적 大型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혹시 방향성이나 어떤 다른 규칙성 등은 확인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